RSS 전문 독해 보고서 — 2026년 11월 10일 (화)

대상 기간: 2026-11-10 00:00 ~ 2026-11-11 00:00 (한국 시간) · 21개 피드 전문 수집 · 해당 기간 새 글 29편 전량 정독 후 선별

> **수집 21/21** — 21곳 모두 정상 수신(참고: EerdWord는 지난 이틀의 전송 오류에서 회복, 정상 수신됐으나 대상 기간 새 글 없음). 해당 기간 새 글이 없었던 피드: Crooked Timber, Kamiya Kenkyujo, Dan Luu, Offsetting Behaviour, Schwitzgebel, Understanding Society, Computational Complexity, EerdWord.
> **차단 보류 6곳**: The Next Recession, Conversable Economist, Jesus Memoirs, Scott Aaronson, The Comics Journal, Leiter Reports — 11/8 403 확인 뒤 3일 규칙에 따라 11/11 표준 방식으로 각 1회 재확인한 결과 모두 403 지속. 승인 전까지 수집 재개 없음.
> **집계**: 대상 기간 글 29편 = 분석 10편 + 생략 19편(아래 명세). Noahpinion 1편은 대화 전문 미확보로 전문독해 조건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하고 생략 목록에 기록.

오늘의 필독

- **Simon Willison, Beep Locator** — 코딩 에이전트에 '감각'을 달아주는 실험의 구체적 기록. simonwillison.net/2026/Nov/9/mysterious-beeps/
- **NachDenkSeiten,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부결** — 부유세 첫 실전 주민투표의 자금·전략·결과 정리(논평). nachdenkseiten.de/?p=158728
- **Daily Nous, Fine·Rosen 보고서 반박** — 철학계 '건강성' 논쟁의 반대편 전문(게스트 기고). dailynous.com/2026/11/09/major-threats-to-the-health-of-philosophy-real-and-imagined-guest-post/

---

1. 코딩 에이전트에게 '귀'를 달다 — 여러 기기의 마이크로 정체 불명의 삐 소리 삼각측량 Simon Willison's Weblog

simonwillison.net/2026/Nov/9/mysterious-beeps/

[사실] AI 개발 도구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블로거 중 한 명인 사이먼 윌리슨이, 집 안 '상자 방' 어딘가에서 간헐적으로 울리던 정체불명의 전자음을 찾아내기 위해 AI 코딩 도구 Claude Code와 함께 'Beep Locator'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아이패드 두 대, 휴대폰, 맥북, 서피스 등 여러 기기를 방 안에 흩어 놓고 각 기기의 마이크로 소리를 듣게 한 뒤, 같은 소리가 각 기기에 도달하는 시차를 비교해 음원의 위치를 좁히는 삼각측량 방식입니다. 기술적 뼈대는 Claude가 찾아낸 2007년 학술 논문 'BeepBeep'(특별한 장비 없이 일반 스마트 기기의 스피커와 마이크만으로 거리와 위치를 재는 음향 측위 시스템)에서 가져왔습니다. 각 청취 기기는 60초 분량의 오디오를 계속 녹음하며, 푸리에 변환(소리를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하는 수학 기법)과 고역통과 필터로 삐 소리 후보를 골라냅니다. 삐 소리가 감지되면 서버가 한 기기에 짧은 '첩' 신호음을 재생시켜 모든 기기의 녹음을 같은 시간축에 맞춥니다. 이 정렬이 위치 계산의 핵심입니다. 시스템은 약 40센티미터 오차로 음원을 특정했

고, 윌리슨은 그 지점의 상자 더미를 뒤져 배터리 교체를 요구하던 오래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찾아냈습니다.

[사실] 제작 과정도 기록돼 있습니다. 시작은 아이폰의 Claude Code Cloud에서 Opus 5.5 모델로 했고, 이후 노트북에서 Fable 5.2 모델로 이어갔습니다. 특이한 점은 초기 모델이 청취 기기들에 installModule()이라는 기능을 심어 두어, WebSocket(브라우저와 서버 간 실시간 양방향 통신)을 통해 실행 중인 각 기기에 새 코드를 원격으로 밀어 넣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사람이 기기마다 돌아다니며 새로고침할 필요 없이 AI가 스스로 실험을 반복할 수 있었고, 사람은 지도 위에 기기 위치를 대략 끌어다 놓거나 '박수 소리 테스트', '이게 그 삐 소리야' 확인 버튼 같은 기능을 대화로 주문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해석] 이 글이 중요한 이유는 일상 해프닝이 아니라 그 시연에 있습니다. Claude 같은 언어 모델은 아직 오디오를 직접 입력받지 못하지만, 마이크 데이터를 분석하는 코드를 직접 짜서 실행할 수는 있습니다. 즉, 모델에 감각 기관이 없다는 한계를 '도구 사용'으로 우회해, 사실상 코딩 에이전트에게 귀를 달아준 것입니다. 저자가 언급한 유사 사례(GitHub 직원이 웹캠으로 기기 화면을 비춰 코딩 에이전트가 업데이트 성공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게 한 것)와 함께 보면, 'AI가 세계를 지각하게 만드는 방법'을 실험하는 흐름이 개발자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는 개인 프로젝트 성공담이므로, 같은 방식이 일반 환경에서 얼마나 재현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2. AI가 가리는 경제 — 고금리에도 투자가 느는 '두 속도' 미국

Econbrowser

econbrowser.com/archives/2026/11/interest-sensitive-and-insensitive-investment-and-the-two-speed-economy

[사실] 매크로 경제학자 멘지 친의 블로그 글입니다. 미국의 비주거용 고정투자(기업이 건물·장비·지식재산 등에 쓰는 돈)는 금리가 높은데도 전체 총량으로는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총량을 뜯어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보기기·소프트웨어·데이터센터·전력구조물 등 AI 붐과 직결되는 항목은 2026년 3분기까지도 성장세가 거의 꺾이지 않았지만, 그 항목들을 뺀 나머지 비주거용 투자는 최근 고점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 격차는 주가에서도 나타나서, AI 대형주 중심의 블룸버그 Mag-7 지수 총수익률이 S&P500 전체를 크게 앞섰다고 글은 지적합니다.

[해석] '두 속도 경제'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총량 지표만 보면 미국 경제는 고금리를 잘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I 투자 붐이라는 하나의 엔진이 나머지의 부진을 가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AI 투자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대형 기업(하이퍼스케일러)의 자체 자금으로 이뤄져 금리를 덜 탔지만, 이들이 자본지출 재원을 채권 시장 차입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AI 투자도 금리에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금리 인상·인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금보다 커진다는 전망인데, 이는 저자의 추론이며 데이터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은 아닙니다. AI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때 총투자 수치가 아니라 구성을 봐야 한다는 점이 이 글의 실용적 교훈입니다.

3. 'AI의 Saez·Zucman 감사'를 다시 감사한 SaneCite — 147개 지적 중 131개 사실관계 일치 Marginal Revolution

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checking-the-ai-audit-of-saez-and-zucmans-research.html (피드 전문 인용)

[사실] 지난 10월 28일 이 블로그가 소개한 바 있는, 부유세·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경제학자 엠마뉘엘 사에즈와 가브리엘 주크만의 연구에 대한 '익명 AI 감사'가 있었습니다. AI가 두 사람의 논문들을 훑어 '헤드라인 수치를 바꿀 만큼 심각한 문제' 147건을 지적한 문서입니다. 이번 글은 검증 서비스 SaneCite가 그 감사 자체를 다시 검증한 결과를 전합니다. SaneCite는 147개 지적 전부를 원논문, 인용된 출처, 저자들의 공개 데이터와 대조했습니다. 결과: 131건은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가 모두 맞았고, 핵심 사실이 틀린 지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영향 기준으로 분류하면 147건 중 헤드라인 수치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21건, '어느 방법론이 맞는지' 논쟁이 있는 선택에 달린 것이 98건, 수치를 바꾸지 않는 것이 20건, 판정 불가가 8건입니다. 방법론 논쟁 99건에 대한 2차 등급에서는 표준적 관행 11, 옹호 가능 70, 의문스러움 11, 등급 불가 6, 논쟁 중 1로 나뉘었습니다. 사에즈와 주크만은 10월 29일 결과를 전달받았으나 11월 6일까지 회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석] 이 '감사의 감사'는 두 가지 층위에서 읽힙니다. 하나는 학술: 유명 연구에 대한 AI 감사가 조작이나 과장이 아니라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했다는 2차 확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정책: 사에즈와 주크만은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아래 5번 글)의 학술적 후원자들인데, 그들의 연구 방법론 상당 부분이 '논쟁 가능한 선택'으로 분류됐다는 점은 부유세 논쟁의 근거 문헌이 얼마나 단단한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엽니다. 단, '옹호 가능' 70건은 원저자들의 방법론이 학계 관행 안에 있음을 뜻하므로, 이 결과를 '연구 부정 확인'으로 읽는 것은 과도합니다. 이 블로그 글은 확인한 사실관계와 해석을 구분해 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피드에 실린 전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

4. 중간선거 이후의 물가 — 의회가 실제로 낮출 수 있는 생활비는 얼마나 되나 Econbrowser

econbrowser.com/archives/2026/11/feasible-cost-of-living-reduction

[사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그로스먼, 웨일런, 베이드)를 인용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게 된 민주당이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논지를 소개합니다. 의회의 주된 수단인 조세와 지출은 느리게 움직이고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 있으며, 이란 전쟁 이후 오른 에너지 가격은 세계 시장이 정하므로 전쟁이 끝나도 휘발유 값이 곧장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원 민주당은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폐지 표결을 준비 중이지만, 대통령의 관세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고 기사는 봅니다. 여기에 블로그 저자 친은 한 가지 관찰을 덧붙입니다. 실효 관세율(실제로 징수되는 평균 관세율)은 이미 과거 고점보다 낮아졌는데, 2025년의 '상호관세'를 대체할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의회가 인기 없는 관세 프로그램에 압력을 넣으면 주요 물가 압력 하나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만 비료 가격 상승이 세계 농업에 미친 타격처럼 일부 효과는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 반이민 정책 완화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 해결 전망에는 비관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해석] 이 글은 선거 결과가 곧 생활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물가의 세 축 — 관세(입법으로 변경 가능), 에너지(전쟁과 세계 시장에 종속), 이민 노동(행정부 정책에 종속) — 중 의회 다수당이 단기에 움직일 수 있는 레버는 사실상 관세뿐이라는 것입니다. 인용된 WSJ 기사의 논지와 블로그 저자의 관찰은 구분해 읽어야 하며, 둘 다 정책 전망이지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관세가 2025년 물가에 기여했다는 점 자체는 연준 뉴욕지점 연구 등 다른 자료에서도 다뤄져 왔지만, 이 글만으로 그 크기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

5.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주민투표 부결 — 2억 6,900만 달러의 반대 캠페인과 두 개의 '독약' 발의안 NachDenkSeiten(독일)

nachdenkseiten.de/?p=158728

[사실] 미국 중간선거와 같은 날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된 주민투표 'Proposition 40'에 관한 독일 논평(필자 랄프 부르츠바허)입니다.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억만장자에게 5퍼센트의 일회성 부담금을 물려 예상 수입 1,000억 달러의 90퍼센트를 의료에, 10퍼센트를 학교와 저소득층 식량 프로그램에 쓰겠다는 안이었습니다.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법 'One Big Beautiful Bill'로 캘리포니아의 공공 의료에 연간 190억 달러 규모 구멍이 생겼다는 점이 있으며, 신문은 노이에 취르허 자이퉁을 인용해 최대 160만 명의 저소득 주민이 주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발의는 의료노조 SEIU-UHW가 주도했고, 경제학자 사에즈·주크만과 상원의원 워런·샌더스, 하원의원 로 카나가 지지했습니다. 2025년 12월 이후 여론조사 17건 중 13건은 찬성 우세였습니다. 반대 캠페인 'Building a Better California'에는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포함한 억만장자 12명 이상이 총 2억 6,900만 달러를 댔고, 브린 혼자 1억 달러 이상을 썼다고 글은 전합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약 47퍼센트, 반대 53퍼센트로 부결됐습니다. 반대 진영은 동시에 두 개의 맞불 발의안을 냈는데, 추가 특별세를 어렵게 만드는 Proposition 41은 부결됐지만 금융자산·주식·기업 지분 등의 '보유' 자체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는 Proposition 42는 52퍼센트로 가결됐습니다. 글은 브린과 래리 페이지가 이미 네바다로 이주했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1월 1일자로 뉴욕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미국·스위스 언론 보도도 인용합니다. 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 소급 기준으로 설계됐지만, 그 이전에 이주하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해석] 필자는 이 결과를 '올리가르히(소수 부호의 지배)의 승리'로 평가하며, 유권자 다수가 여론조사에서 찬성했음에도 자금력이 판세를 뒤집었다고 봅니다. 이는 논평의 입장이며 본 보고서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다만 구조적 쟁점은 분명합니다. 미국은 주(州)마다 과세권이 커서 텍사스·플로리다처럼 주 소득세가 0인 곳으로 부자가 이주하는 방어가 가능하고, 이번처럼 '경쟁 발의안 중 다득표안만 유효'라는 규칙을 이용한 독약(포이즌 필) 전략도 합법입니다. 부유세의 실효성 논쟁 — 과세 기반이 이동하면 세수가 줄어 오히려 주 재정이 악화된다는 반대 논리 — 가 첫 실전 시험에서 확인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3번 글의 사에즈·주크만 연구 감사 논란과 맞물려 읽을 때, 부유세를 둘러싼 논쟁이 법안·자금·학술 근거 세 층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 독일 BSW의 '자책골' 논란 — 정반대 입장의 언론인을 연방회의 대표로 지명 NachDenkSeiten(독일)

nachdenkseiten.de/?p=158719

[사실] 독일 좌파 정당 BSW(부흐트·바그네크네히트 연합)의 작센 주의회 교섭단체가 유명 저널리스트 콘스탄틴 슈라이버를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 대표로 지명해 11월 5일 선출된 사건을 다룬 논평(필자 마이케 고쉬)입니다. 연방회의는 독일 연방대통령을 뽑는 기관으로, 연방하원의원 전원과 같은 수의 주의회 선출 대표로 구성되며 이번에는 약 1,260명 규모입니다. 논란의 이유는 슈라이버가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 입장에 선 보도로 알려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BSW와 반대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BSW는 독일 주요 정당 중 유일하게 뚜렷한 친팔레스타인 입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해 왔습니다. 슈라이버 본인도 영상 성명에서 BSW와 '외교정책에서 어떤 접점도 없다'고 확인하고 자신이 별도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BSW의 다른 대표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로 표를 모은 정당이 정반대 인물을 내세웠다'(율 엘카팁), '정체성을 희생한 계산된 우경화'(전 베를린 부대표 지벨 아이딘리 — 기사에는 그녀가 이미 탈당했다는 정정이 달림)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명을 옹호하는 쪽은 '브란트마우어(극우와의 방화벽) 없는 열린 대화' 논리를 폈고, 당 공동대표 데 마시와 모하메드 알리는 11월 7일 '비판적으로 본다'는 온건한 성명을 냈습니다(한델스블라트 보도 인용).

[해석] 필자는 이를 '자책골'이자 '유권자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합니다. 연방회의 1표의 실질적 무게는 작지만, 외교 정책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은 정당이 상징적 자리에 반대 입장의 인물을 앉혔다는 신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린 대화' 논리에 대해 필자는 토론회 초청과 공식 대표 지명은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다만 필자도 이것이 '무능'인지 '노선 변경'인지는 판단이 어렵다고 적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정치 세력과 중동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담긴 논평이므로, 여기 인용된 모든 평가는 필자와 인용된 인물들의 것이며 본 보고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

7. 저자가 스스로 철회를 요청했는데 1년째 '조사 중' — Elsevier 표절 의혹 사건 Retraction Watch

retractionwatch.com/2026/11/09/forest-policy-economics-land-use-policy-plagiarism-allegations-retraction-request-elsevier/

[사실] 학술 부정행위를 추적하는 매체의 보도입니다. 2023년 Forest Policy and Economics에 실린 방글라데시 산림 공동관리 논문(플로라 베굼, 리사 로브리 더 브루인)과 2025년 Land Use Policy에 실린 중국 토양 보전 논문(정 차이 등)은 겉보기에 다른 주제입니다. 그런데 원논문 저자 더 브루인이 읽어 보니 방법과 그림, 자료 제시가 '축과 주제를 교묘히 바꿨을 뿐'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 논문의 표 1에는 동일한 참여자 집단의 동일한 평균 소득 수치가 나타나고, 2021년 논문의 그림 두 장이 출처 표시 없이 재사용됐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더 브루인은 지난해 12월 2일 양쪽 학술지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Land Use Policy 편집장 치그부는 저자들에게 '심각한 표절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저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학문적 성실의 최고 기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논문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편집장은 '개념 틀 개선과 검증 필요'라는 사유로는 철회할 수 없다며 표절 의혹 자체에

답하라고 했고, 저자 측이 같은 날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메일을 마지막으로 양측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후 약 1년이 지나도록 두 학술지의 출판사 Elsevier는 '조사가 진행 중이며 더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자 정차이는 본 매체에 '공동관리 이론이라는 널리 쓰이는 분석 틀을 공유한 데서 온 유사성일 뿐'이라고 반박했고, 철회 요청은 '부정 인정이 아니라 투명성을 위한 사전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해석] 이 사건의 쟁점은 표절 여부 자체보다 절차입니다. 보통 철회는 저자가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저자가 스스로 철회를 요청했는데도 1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원저자 베굼은 '이런 유사성이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동료 심사의 엄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합니다. 표절 의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며, 피의 논문 저자들의 반박도 기사에 병기돼 있습니다. 보도는 이메일 원문을 확인한 내용에 근거하지만, 조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어느 쪽 주장도 확정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

8. '철학의 건강'을 둘러싼 논쟁 — Fine·Rosen 보고서에 대한 Bettcher·Saul의 반박 Daily Nous

dailynous.com/2026/11/09/major-threats-to-the-health-of-philosophy-real-and-imagined-guest-post/

[사실] 밴더빌트대가 주도한 '인문학·인문사회과학 학술 현황 보고서'의 철학 특별 보고서(뉴욕대 킷 파인, 프린스턴대 기디언 로즌, 10월 15일 공개)가 학계 철학은 대체로 '건강'하지만 성·젠더 철학 분야에서는 이견을 억누르는 '사실상의 정통' 압력이 '비상식적'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게스트 기고문은 성·젠더 철학자인 탈리아 베처와 제니퍼 솔(둘 다 워털루대)의 반박입니다. 요지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보고서가 대표 사례로 든 레베카 투벨 논문 논쟁(페미니스트 학술지 Hypatia 게재 후 철회 요구)은 실제로 철회가 기각됐으므로 '억압' 사례가 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보고서가 말하는 정통('트랜스 여성은 여성이며 모든 사회적·법적 목적에서 그렇게 대우돼야 한다' 등)은 실제 분야 논의와 맞지 않으며, 샐리 해슬랭거(2000, 인용 1,785회)를 비롯해 베처 본인, 매슈 컬, 로빈 뎀브로프, 캐서린 젱킨스 등 유력 논의 다수가 그 '정통'과 다른 결론을 냈다고 지적합니다. 셋째, 분야를 대표하는 스탠퍼드 철학백과(SEP)의 두 항목이 '젠더 비판적(gender-critical)' 견해를 다루고 있어 배제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넷째, 보고서가 든 억압 사례들은 청원이 기각됐거나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경우라 억압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다만 온라인 집단 공격(pile-on)은 실제 문제로 인정하되, 이는 이 분야만의 현상이 아니며 트랜스 연구자들도 표적이 됐다고 적습니다. 다섯째, 캐슬린 스톡 교수 사임 사례는 대학 측이 스톡을 지지했고 주된 압력은 철학자가 아닌 학생·노조에서 비롯됐으므로 '철학자들의 억압' 사례로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기고문은 진짜 위협으로 미국 연방·주 정부의 학문 자유 공격 — 젠더 연구 제한, 트랜스젠더의 의료·공공장소 접근 제한 — 를 들며, 필자 중 한 명이 이 때문에 미국을 떠나야 했다고 밝힙니다.

[해석] 이 논쟁은 '학문 분야가 건강한가'를 무엇으로 재는가의 프레임 싸움입니다. 보고서는 표현 억압의 징후를, 기고문은 정부 규제와 시민권 침해를 위협의 중심에 놓습니다. 양쪽 모두 학계 저명 인사들이며, 여기 소개된 사실 관계(인용 횟수, 사건 경과)와 가치 판단은 각 문서의 주장으로 귀속됩니다. 본 보고서는 어느 쪽의 진단도 채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반박문이 동료 철학자

들이 읽는 주요 매체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이 논쟁이 철학계 내부의 공개적 의제가 됐음을 보여줍니다.

---

9. 인류는 '통째로' 구원되는가 —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와 정화로서의 사후 세계 Experimental Theology

experimentaltheology.blogspot.com/2026/10/salvation-and-unity-of-human-nature_01806257187.html

[사실] 심리학자이자 신학 블로거인 리처드 벡의 연재 6편입니다. 시리즈의 전제는 인간 본성이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론적 전체라는 관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본성을 취해 치유했다면, 모든 개인은 그 전체에 참여함으로써 은총을 받아들일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관점이 은총과 자유의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을 비껴 간다고 봅니다. 능력의 회복과 실제 동의는 다르므로, 어떤 사람은 죽음의 시점에 은총을 거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4세기 교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등장합니다. 인류가 하나의 전체라면 구원도 부분적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고, 저자는 이것이 그레고리우스가 인류 전체의 최종 구원(보편 구원론)을 전망한 이유라고 해석합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저작 『영혼과 부활에 대하여』를 길게 인용해, 사후의 고통을 벌이 아닌 정화로 설명합니다. 금에서 불순물을 녹여 없애듯 악이 태워 없애지는 동안 영혼도 불 속에 있게 되며, 고통의 길이는 각자 안에 남은 악의 양에 비례합니다. 그레고리우스의 문장대로, '신이 창조한 것은 신이 구원하며', 신은 인류 전체를 창조했으므로 전체를 구원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해석] 이 연재는 기독교 신학에서 오래 논쟁된 보편 구원론을 '본성의 단일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전제에서 재구성합니다. 지옥을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소멸을 향한 정화 과정으로 읽는 그레고리우스의 그림은 현대의 '조건부 불멸성'이나 '전멸설' 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한 신학 블로그의 교의적 해석이며, 각 교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학에 관심 없는 독자에게도 '인간을 개인으로 볼 것인가 하나의 종으로 볼 것인가'라는 물음이 구원 논의 같은 실천적 결론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힙니다.

---

10. 매일 1권의 축적을 다시 보다 — 서평 블로그의 '7월 서평 30선' 회고 書評家・東莉央の毎日書評(일본)

books76.hatenablog.com/entry/2026/11/10/120000

[사실] 거의 매일 한 권씩 서평을 올리는 일본 서평가 아즈마 리오의 블로그가, 하루 한 편의 속도 때문에 이전 서평이 묻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월별 회고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첫 회는 2026년 7월에 공개한 서평 가운데 30작을 골라 각각 짧은 요약과 함께 다시 소개합니다. 구성은 소설이 중심이지만 폭이 넓습니다. 여성에게서 성적 애착과 생식이 분리된 사회를 그린 무라타 사야카의 『세계99』, 인간과 AI의 유사성을 묻는 한국 SF 작가 김보영의 단편집 『얼마나 닮았는가』, 제168회 나오키상 수상작으로 전국 말기 이와미 긴잔의 여성 광부를 그린 치하야 아카네의 『은의 잎』, 앙겔라 메르켈의 회고록 『자유』, 사토 마사루의 지정학 입문서 『앞으로의 세계의 분쟁』, 아우슈비츠의 여성 악단을 이끈 바이올리니스트 알마 로제의 전기 『말러의 조카』 등입니다. 각 항목은 원 서평의 발췌 수준 요약이며, 블로그에는 상품 광고가 함께 실려 있으나 이 보고서는 광고성 문구는 다루지 않습니다.

[해석] 이 글 자체는 새 서평이 아니라 회고이므로, 분석도 회고 수준에 머뭅니다. 그래도 30권의 목록은 한 서평가의 독서 지도를 보여줍니다. 경계와 정체성(젠더, 이주, 장애와 질병, 국적을 넘나드는 관계)에 대한 관심이 소설·비소설을 가로질러 반복되고, 일본 서적뿐 아니라 한국·중국·독일·미국 작가의 번역서가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매일 1권이라는 속도가 만드는 문제 — 개별 서평이 곧바로 파묻히는 것 — 를 회고 형식으로 푼 것은, 속도형 글쓰기가 지속 가능하려면 큐레이션 장치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답입니다. 개별 책에 대한 평가는 서평가 개인의 감상이며, 원서 자체에 대한 비평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생략 19편 명세

- Econbrowser 「Naval Deployment as of 11/9」 — 함대 배치 소스 한 줄 단신.
- Econbrowser 「Furman and FRB/US on the AI Boom's Impact」 — 제이슨 퍼먼의 FRB/US 시뮬레이터 글을 소개하는 짧은 안내(그래프 소개가 본체).
- Cafe Hayek 「Some Links」 — 링크 모음. 쿠바 정전 위기 원인 분석, 윌리엄 노드하우스 추모, 관세와 중간선거 결과 해석 등을 발췌 소개.
- Cafe Hayek 「Quotation of the Day…」 — 사뮤얼 그레그 신간 인용(주는 것과 빼앗는 것의 차이).
- Cafe Hayek 「Bonus Quotation of the Day…」 — 스테파니 슬레이드 신간 인용(1989년 폴란드 선거).
- Marginal Revolution 「Godzilla: Minus Zero」 — 짧은 영화 감상평.
- Marginal Revolution 「Unbeatable」 — 브라이언 캐플런 신간 소개(발췌 + 추천).
- Marginal Revolution 「Monday assorted links」 — 링크 모음.
- Noahpinion 「Noah Smith and Azeem Azhar discuss the AI boom」 — 팟캐스트 대화 공지. 대화 전문(transcript)이 제공되지 않아 전문독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 발췌 기반 대체 분석은 하지 않음.
- Evangelical Textual Criticism 「New Issue of the TC Journal」 — 오픈 액세스 학술지 31집(창간 30주년) 발행 안내.
- Daily Nous 「New Digital Editions of Hegel, Schelling」 — 헤겔·셸링 무료 디지털 판본 공개 소식.
- Daily Nous 「John Heil (1943-2026)」 — 형이상학·심리철학자 존 헤일 부고.
- Norbert Haering 「Google zahlt für Stromverzicht」 — 구글이 Voltus와 함께 수요반응(혼잡 시간대 절전 보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단신.
- Norbert Haering 「Kurz gemeldet」 — 짧은 소식·정정 모음.
- NachDenkSeiten 「BSW und AfD jenseits der Brandmauer」 — BSW·AfD 소속 정치인의 대담 행사 기록(영상 동반). 행사 소개 성격.
- NachDenkSeiten 「Die Polarisierung von Trump war nicht erfolgreich」 —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독일 정치인 발언 모음(O-Töne).
- NachDenkSeiten 「Alkohol, Zucker, Tabak」 — 설탕·술·담배 소비세 인상이 역진적이라는 논평.
- NachDenkSeiten 「Hinweise des Tages」 — 타 매체 기사 링크 모음.
- 批評の手帖 「데닌과의 대담 외」 — 『문예춘추』 12월호 대담·서평 게재와 강연회 등 안내 모음.

방법과 한계

- 수집: 2026-11-11 07:50 KST, 21개 피드를 표준 방식(동일 요청 조건)으로 1회씩 수집. 대상 기간 내 글 29편 전량을 끝까지 읽은 뒤 선별했다.
- 전문 검증: 분석 대상 10편 중 9편은 원문 페이지와 피드 본문의 앞·중간·끝을 대조해 전문 수신을 확인했다(Simon Willison은 피드 끝의 구독 안내 문구만 원문 페이지와 다르고 기사 본문은 일치). Marginal Revolution 1편은 기존 예외 규칙에 따라 피드 전문 인용으로 처리했다.
- 제외 기준: 영상·팟캐스트 공지는 대화 전문이 아니므로 분석하지 않는다. 발췌만 있는 글의 발췌 기반 분석도 하지 않는다(Noahpinion 적용 사례).
- 정치·법적 민감 주제(미국 중간선거·부유세, 독일 정당 논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언급, 학계 논쟁)는 각 글의 주장을 필자에게 귀속시켜 중립적으로 요약했으며, 보고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인용된 수치(예: 캘리포니아 투표율, 반대 캠페인 자금)는 해당 기사의 보도·주장이며 독립 검증은 하지 않았다.
- 차단 보류 6곳은 11/11 재확인에서도 모두 403을 반환했다. 3일 규칙의 1회 재확인이 완료됐으므로, 계속 거부로 기록하고 대안 탐색 여부는 사용자 결정에 넘긴다. 재확인은 표준 방식으로만, 우회 없이 진행했다.

출처 목록

- Simon Willison's Weblog — https://simonwillison.net/2026/Nov/9/mysterious-beeps/
- Econbrowser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interest-sensitive-and-insensitive-investment-and-the-two-speed-economy
- Econbrowser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feasible-cost-of-living-reduction
- Marginal Revolution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1/checking-the-ai-audit-of-saez-and-zucmans-research.html (피드 전문 인용)
- NachDenkSeiten — https://www.nachdenkseiten.de/?p=158728
- NachDenkSeiten — https://www.nachdenkseiten.de/?p=158719
- Retraction Watch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1/09/forest-policy-economics-land-use-policy-plagiarism-allegations-retraction-request-elsevier/
- Daily Nous — https://dailynous.com/2026/11/09/major-threats-to-the-health-of-philosophy-real-and-imagined-guest-post/
- Experimental Theology — https://experimentaltheology.blogspot.com/2026/10/salvation-and-unity-of-human-nature_01806257187.html
- 書評家・東莉央の毎日書評 — https://books76.hatenablog.com/entry/2026/11/10/120000